



&lt;그림 160&gt; 평해읍성 3D 위성사진

평해읍성이 위치한 곳은 지형이 기성읍성이 위치한 곳과 매우 유사하다. 바다와 가깝고 큰 강을 끼고 있어 어패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넓은 들판이 있어 농경 생활도 편리하다. 양은 구릉지대, 특히 기성읍성과 같이 반원상의 삼태기형 구릉을 형성하고 있어 추위는 물론 적과 맹수로부터의 방어에 매우 적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표 조사에서 선사시대의 유물편은 채집되지 않았으며, 삼국시대의 토기편들만 일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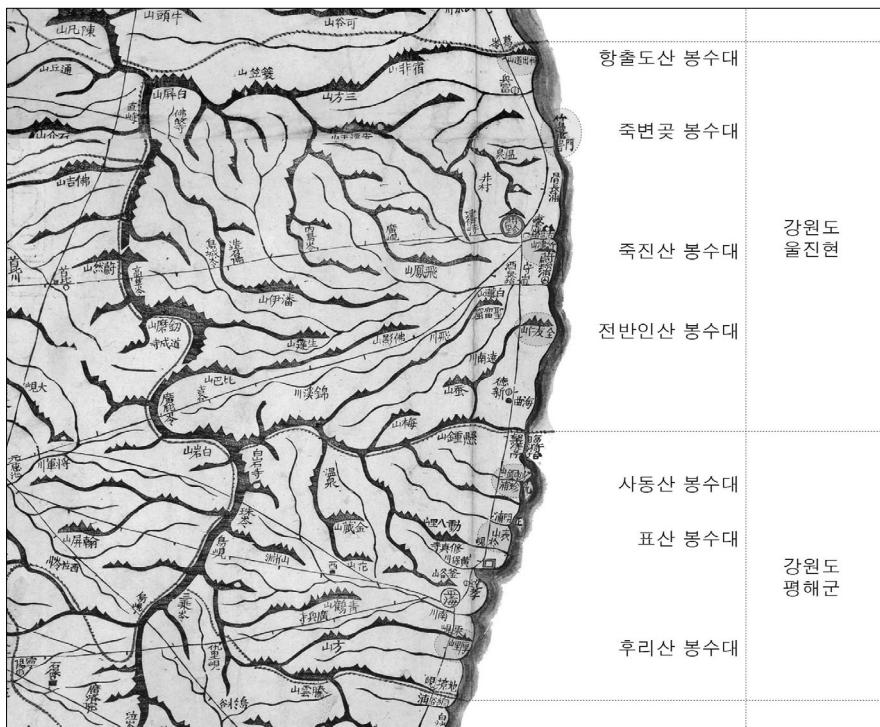
## 제2절 봉수대<sup>683</sup>

봉수는 횃불과 연기로 변방의 위급한 군사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는 군사통신 제도 중 하나이다. 봉수대의 위치는 전망이 좋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봉수대가 위치한 자리는 정상보다는 산허리에 설치하여 산을 오르내리는데 쉽고, 교대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였다.

국경과 해안에서 올라오는 봉수 노선은 크게 대별하여 ‘직선봉수(直烽)’과 ‘간선봉수(間烽)’로 구분한다. 직봉이란 기간 선로를 말하고, 간봉이란 직봉과 직봉사이의 중간지역을 연

683. 울진군에 위치한 봉수대 유적에 대한 내용은 안동대학교박물관·울진군, 2006『울진군 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울진군·한빛문화재연구원, 2015,『울진 표산 봉수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가필하였음을 밝힌다.

결하는 보조선을 말한다. 조선시대 전국의 봉수망은 1로에서 5로까지 5개 직봉 선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울진의 봉수노선은 제1로와 제2로에 연결되어 있다. 즉 1로는 목멱산 봉수에서 볼 때,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기점은 함경도 영안동이며, 강원도와 경기도를 거쳐 양주 아차산을 통하는 봉수를 말하며, 2로는 목멱산의 남동향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기점은 경상도 동래, 경북, 충북, 경기도 광주 천천령으로 오는 봉수였다. 그러나 동해안의 강원도 봉수는 2로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경북 영덕 대소산 봉수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강원도 지역 대부분의 봉수대가 그 기능을 잃어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61> 울진의 봉수대 위치도(대동여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울진의 봉수대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해안지역은 간봉에 해당되나 내륙지역은 제1거에 해당되는 직봉이다. 해안지역의 봉수대 입지는 서해안 제5거 봉수로상에 위치한 봉수대처럼 동해로 통해 침입하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침투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 때문에 연안봉수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역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위치가 높아 후방과 상통하기 좋은 반도부의 끝부분 즉 곶(串)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안면의 비교적 높은 봉우리가 적지가 된다.

울진지역에 분포되어지는 봉수대는 조선시대 전국의 봉수를 5개 노선으로 정리한 『경국

대전』과 『증보문헌비고』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조선시대 봉수망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 지역 봉수대가 간봉으로 직봉들을 연결하는 보조노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울진지역 봉수대는 봉수망은 영덕 대소산 봉수대↔후리산 봉수대↔표산 봉수대↔사동산 봉수대↔전반인산 봉수대↔죽진산 봉수대↔죽변곶 봉수대↔항출도산 봉수대↔강원도 삼척 가곡산 봉수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은 남북으로 이어져 북쪽으로는 제1거인 회양 소산 봉수대, 남쪽으로는 제2거인 안동 봉지산 봉수대로 연결된다. 봉수대의 설치시기는 알 수 없으나, 폐지시기는 1760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봉수를 나타내는 용어가 ‘봉화(烽火)’에서 ‘봉수(烽燧)’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14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봉화’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모든 문헌에는 ‘봉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봉화와 봉수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나타난 용어의 변화로 보인다. 울진지역 봉수대 명칭 가운데 『세종실록지리지』와 기타 기록과는 한자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사동산의 ‘동’자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동(東)’ 또는 ‘동(冬)’, 나머지 기록에는 ‘동(銅)’으로 되어 있고, 항출도산의 ‘항’자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궁(亘)’, 나머지 기록에는 ‘항(恒)’으로 되어 있다.

현재 울진군에는 총 7개의 봉수대가 있다. 남쪽의 영덕 대소산 봉수와 북쪽의 삼척 가곡산 봉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해안에 위치하여 연변 봉수의 기능을 갖고 있다. 울진 지역의 봉수로는 강원도 연안면의 간봉으로, 북쪽으로는 삼척 가곡산 봉수와 응해 통천 금란성 봉수와 이어져 제1거 직봉인 회양 소산 봉수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영덕 대소산 봉수와 응해 제2거 직봉인 안동 봉지산 봉수로 연결된다. 울진지역은 『증보문헌비고』에서 전하는 5개의 봉수로 가운데 제1거와 제2거를 연결하는 간봉로에 속한다. 울진과 평해의 봉수와 연결되는 강원도 연안의 봉수로를 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3> 울진의 봉수대 분포표

순번	봉수대명칭	기단부 크기(m)			석축연대평면	연대크기(m)			연소실	연대재질
		너비	길이	높이		너비	길이	높이		
1	후리산봉수대	.	.	.	.	.	.	.	.	.
2	표산봉수대	21.6	29.6	2	방형	7	9	2.4	방형(추정) 1.7x1.9	석축
		16.8	23.7							
3	사동산봉수대	24.4	38.4	1	방형	7.8	7.3	2.7	방형(추정)	석축
						1.1	1.6			

순 번	봉수대 명칭	기단부 크기(m)			석축연대 평면	연대크기(m)			연소실	연대재질
		너비	길이	높이		너비	길이	높이		
4	전반인산 봉수대	20.7	26.7	2.2	원형	하부지름 8	1.2	방형(추정) 2x2.6	토석흔축	
		16.6	20.7							
5	죽진산 봉수대	상부지름 13.1	하부지름 25	2	원형	상부지름 2.4	하부지름 9.2	2.8	.	토석흔축
6	죽변곶 봉수대	.	.	.	(추정)방형 (현재)원형	8	10	0.7	.	토석흔축
		.	.	.		7.5	8			
7	항출도산 봉수대	상부지름 9	하부지름 11	1.2	(추정)방형 (현재)원형	상부지름 4.5	하부지름 6	0.8	.	토석흔축
8	가곡산 봉수대	.	.	.		10.5	11.4	2.7	방형(추정) 2.3x2.5	석축
		.	.	.		2.3	2.5			

울진지역 봉수대의 입지는 해안가의 전망 좋은 산봉우리나 또는,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돌출된 곳(추)의 산봉우리에 위치한다. 조망이 가장 쉽게 잘 되는 곳에 봉수대 입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연안봉수는 최대한 바다와 가깝고 해안의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서 설치되는데, 해안의 경비와 초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구조적 특징은 기단부는 토축이나 토석흔축이 많고, 평면형태는 능선이 모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원형이나 타원형이 많다. 길이 및 장축지름은 평균 21m, 단축지름은 평균 15m이다. 기단부의 높이는 사동산 봉수와 항출도산 봉수는 1m 내외이고, 표산봉수대·전반인산 봉수대·죽진산 봉수대는 2m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연대는 석축이나 항출도산 봉수대, 죽변곶 봉수대와 죽진산 봉수대 등 훼손이 심각한 봉수대는 유실된 석축 대신 토축을 보충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이며 대체로 방형이 기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2m 내외이며, 곡산 봉수대 등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오름형식의 일부분이 확인된다. 방호벽은 사동산 봉수와 죽진산 봉수에서 확인되었는데 높이 1m 내외의 토축 방호벽이다. 사동산 봉수는 기단부 상부에 연대를 반쯤 둘러싼 형태이고, 죽진산 봉수대의 토축은 기단부 아래의 주변 지형을 반쯤 아우르는 형태로 차이가 있다.

연변봉수대간 직선상 평균거리는 8km 정도이다. 울진지역 봉수대간의 직선상 거리는 최대 9~12km 사이, 최소 7.5~8km 사이 정도이다. 연안봉수대의 형태는 모두 단봉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된 조건을 갖춘 봉수대는 울진지역 및 강원도 지방의 간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봉수대의 사용 시기를 보았을 때 통일신라시대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로 추정된다. 이는 문헌상 보이는 울진지역 봉수의 치폐시기와 비슷하다. 울진지역의 봉수대 가운데 유물이 수습된 곳은 사동산 봉수대, 전반인산 봉수대, 죽진산 봉수대, 죽변곶 봉수대, 항출도산 봉수대이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항출도산 봉수대에서 수습되었다. 회색 고배굽편과 짙은

회색 대부호굽편과 함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에서부터 조선시대 백자편과 무문기와편이 수습되어 오랜 기간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동산 봉수대에서는 고려시대 토기 외에 직선문 및 어골문 기와편과 함께 운문 분청사 기굽편이 수습되어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인산 봉수대에서는 토기편과 구획복합문·사격자문이 타날된 기와편이 수습되어 조선 초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죽진산 봉수대에서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토기편과 함께 백자굽편이 수습되었는데, 백자는 기형과 태토 빛음 눈받침 형식 및 내저원각 등의 특징으로 보아 16세기경의 것으로 보인다. 죽변곶 봉수대에서는 유물수량이 많지 않으나 고려 및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무문기와편이 수습되었다.

## 1. 사동산 봉수대

기성면 사동 2리 산 348번지에 위치한다. 사동산 봉수대의 봉수망은 남쪽으로 표산 봉수대, 북쪽으로 전반인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강원도 평해군 소속 3개소 봉수 중 1개소였다. 전기에는 북쪽의 근남면 산포리 전반인산 봉수에 신호를 전달하는 단일 노선이었으나, 중기 이후에는 남쪽의 기성면 봉산리 표산 봉수에 응하는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었다 한다.



<그림 162> 울진 사동산 봉수대

사동산 봉수대의 위치는 사동리 ‘상사동’마을에서 보면 북서쪽 해발 94.1m의 구릉 정상부이다. 전체적으로 해안가의 약간 돌출된 능선 정상부에 위치하여 주변면 조망이 쉽고, 동해와 인접한 능선부는 절벽으로 적의 침입이 어려워 입지가 좋다. 봉수대의 설치는 북서·남동으로 긴 능선 정상부를 평탄작업을 한 후, 지형상 동·서·북쪽의 급격한 경사면을 두고 남쪽으로 트여 낮아지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남쪽 경계부에 30cm 내외의 산돌로 4~5단 가량 쌓아 높이 1.2m인 석축을 쌓고 상부에는 길이 1m 이상의 장대석을 올렸다. 이 것을 약 17m 가량 설치하여 계단식 지형을 만들었다. 또 석축부분과 연결되어 남쪽과 동쪽으로 길이 30cm, 너비 20cm 내외의 산돌로 1단의 석열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하였다. 봉수대의 평면형태는 북서쪽 끝이 뾰족한 달걀형에 가까운 장타원형이다. 기단부의 크기는 길이 38.4m, 너비 24.4m, 높이 1m이다.

연대는 평면형태 방형으로 타원형의 평면 중앙부에서 약간 넓은 남동쪽 경계부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길이 30cm, 너비 15cm, 두께 10cm 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하단부를 방형으로 쌓았으며, 그 위로 4~5단의 석축을 쌓아 올렸다. 최하단은 방형으로 쌓고, 그 위쪽으로는 석열의 경계가 어긋나 거의 원형에 가깝게 쌓아 올려졌다. 다만 정상부 부근은 다시 방형의 형태를 일부 이루고 있어 연소실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형 석축연대의 하부 크기는 길이 7.3m, 너비 7.8m이고, 전체 높이는 2.7m이다. 연대 상부에는 소성실로 추정되는 방형 형태가 보이는데 길이 1.6m, 너비 1.1m이다.

봉수대의 연대 북·동·남쪽을 아우르는 호형의 토축 방호벽이 있어 특이하다. 토축 방호벽은 전체 경계로부터 약 3m 가량 떨어져 석축연대의 동쪽 벽석에 붙여 지형을 따라 그대로 반호를 이루며 석축연대를 감싼 형태인데, 방호벽의 곳곳에 길이 30cm 내외의 산돌이 혼재되어 있다. 토축 방호벽의 규모는 총 길이 34m, 너비는 좁은 곳 0.9m, 넓은 곳 4.5m이고, 높이 1.3m 가량이다.

## 2. 전반인산 봉수대

근남면 산포 1리 산 121번지에 위치하며 ‘흑포동’ 마을에서 남쪽 진념골 끝의 해발 100m 인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봉수대는 주변보다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조망이 가능하고, 동해와 접한 능선부는 절벽으로 적의 침입이 어려워 입지가 좋다. 전반인산 봉수대의 봉수망은 남쪽으로 사동산 봉수대, 북쪽으로 죽진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인산 봉수대는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강원도 울진현 소속 4개소의 봉수 가운데 1개소였다. 남쪽의 사동산 봉수, 북쪽의 죽진산 봉수와 연결되는 연변 봉수이다.



&lt;그림 163&gt; 울진 전반인산 봉수대

봉수대는 동·서·남쪽 세 갈래로 갈라지는 능선부의 중앙 정상부에 위치한다.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완만히 낮아지고, 동북쪽과 서남쪽이 급격히 낮아지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정상부에 평탄작업을 마친 후 평면 원형에 가까운 장타원형 토축 기단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원형의 석축연대를 만들었다. 평면형태 타원형이 기단부는 장축방향이 남-북이고, 크기는 하부가 길이 26.7m, 너비 20.7m, 상부가 길이 20.7m, 너비 16.6m, 전체 높이 2.2m이다. 기단부의 높이는 북쪽과 서쪽 부분이 높고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 부분이 비교적 완만하게 되어 있어 기단부를 오르는 입구는 동쪽이나 남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는 평면형태 원형으로 타원형 기단부의 북동쪽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길이 30cm, 너비 25cm, 두께 15cm 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하단부를 원형으로 쌓았으며, 그 위로 3~4단 정도의 석재를 쌓고, 상부쪽은 토축을 함께 사용하였다. 석축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최하단과 중간 단의 원형 석축이 잘 남아 있는 편이며, 남쪽 측벽의 석축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원형 석축연대의 하부 지름은 8m로 길이 2.6m, 너비 2m인 전체 높이는 1.2m이다. 연대의 정상부에는 하부와 상부의 차이가 거의 없다. 방형에 가까운 석열 흔적이 남아 있어 소성실로 추정되나 확인은 어렵다.

### 3. 죽변곶 봉수대



<그림 164> 울진 죽변곶 봉수대

죽변면 죽변리 123-2번지에 위치한다. 죽변곶 봉수대는 죽변초등학교의 동쪽편으로 150m 떨어진 마을 안 해발이 낮은 곳에 훼손된 상태로 존재한다. 주변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해발 30~35m 내외로 낮지만 북쪽과 남쪽의 봉수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봉수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죽변곶 봉수대의 봉수망은 남쪽으로 죽진산 봉수대, 북쪽으로 항출동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 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죽변곶 봉수대는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강원도 울진현 소속 4개소의 봉수 가운데 1개였다. 남쪽의 죽진산 봉수, 북쪽의 항출도산 봉수와 연결되는 연변봉수이다.

봉수대의 축조는 지대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자연지형의 일부를 편평하게 정지하여 기단부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의 토석흔축 연대를 설치하였다. 마을에서 수차례 보수하면서 원형의 훼손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토축 기단부의 평면은 후대에 들어선 주택으로 인해 남쪽과 동쪽 부분의 훼손이 심한데, 남아 있는 부분만 보았을 때 남쪽 석축 부분이 직선이나 동·서·북쪽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남쪽 경계에 길이 30cm, 너비 15cm 내외의 산돌을 4~5단 쌓았는데, 규모는 길이 5.5m, 높이 1m이다. 연대의 경계부 일부에는 길이 20~25cm 내외의 산돌로 1단 석열을 설치한 곳도 있다.

연대는 평면형태 원형에 가깝고, 원형 기단부의 북쪽에 치우쳐 설치하였다. 석축연대의 남쪽측면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길이 20~30cm 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하단부를 원형에 가

깝게 2~4단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토석흔축 연대의 크기는 하부가 길이 10m, 너비 8m이고, 상부가 길이 8m, 너비 7.5m, 전체 높이 0.7m이다. 그러나 연대 경계부의 석열이 북쪽과 동쪽에 모서리가 둔각으로 져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방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대의 북동쪽은 무너져 내린 흔적인지 원래부터 있던 연대의 하단부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호형으로 2~3단의 석열을 이루며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로 오르는 출입구로 추정된다. 소성실이나 건물지 및 창고지로 보이는 흔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 4. 죽진산 봉수대



<그림 165> 울진 죽진산 봉수대

울진읍 연지 2리 43-2번지에 위치한다. 봉수대는 ‘내봉동’마을의 동쪽 해안가에 돌출된 해발 55m인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죽진산 봉수대의 봉수망은 남쪽으로 전반인산 봉수대, 북쪽으로 죽변곶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 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죽진산 봉수대는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강원도 울진현 소속 4개소의 봉수 가운데 1개소였다. 남쪽의 전반인산 봉수, 북쪽의 죽변곶 봉수와 연결되는 연변봉수이다.

봉수대의 설치는 완만한 경사지인 자연지형의 일부를 편평하게 정지하여 원형 토축 기단부를 만들고, 그 위에 원형 토석흔축 연대를 설치하였다. 크기는 하부 지름 25m, 추정 상부 지름 13.1m, 전체 높이 2m이다. 기단부의 북쪽이 비교적 완만하여 출입로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는 평면형태 원형으로 원형 기단부의 중앙에 설치하였다. 길이 35cm, 너비 20cm, 두

께 15cm 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하단부를 원형으로 쌓고, 그 위에 각을 좁혀가며 3~4단 정도 산돌을 쌓은 후 토축을 한 것으로, 상부쪽으로 갈수록 토축의 사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대의 하단부에 노출된 석축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서쪽 경계 일부에서 석축의 원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연대의 재료는 원래부터 토석 혼축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밭둑을 만들면서 연대에 있던 석재를 가져다 사용했다는 주민의 전언과 서쪽 경계 일부에 남아 있는 석축의 형태와 대형 석재로 보아 본래 석축연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형 석축연대의 크기는 하부 지름 9.2m, 상부 지름 2.4m, 전체 높이는 2.8m이다. 연대의 정상부쪽으로 갈수록 석재의 양은 줄고 토축의 비율이 높아진다. 정상부는 약간 편평하게 되어 있으며, 길이 10cm 내외의 작은 산돌이 훌어져 있다. 현재 상태에서 소성실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죽진산 봉수대의 북서쪽으로는 토축 방호벽이 있는데, 서쪽으로 난 봉수대의 입구부에서부터 북쪽의 계단식 지형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다. 토축 방호벽의 규모는 총 길이 32m, 너비 2.3m, 전체 높이 0.7m이다.

이 외에 명확하게 건물지 및 창고지로 보이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나 토벽 내부 및 외부쪽에 상당히 넓은 평탄지가 있고. 연대의 서쪽 경계부의 장대석 주변과 봉수대의 남쪽에 있는 밭 주변에서도 토기와 백자편이 수십 점 발견되고 있어 봉수대와 관련된 건물지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표산 봉수대<sup>684</sup>

기성면 봉산 1리 277번지의 표산 봉수대의 위치는 ‘봉수’마을에서 보면 마을의 서편 해발 78.3m의 구릉 정상부이다. 표산 봉수대의 봉수망은 북쪽으로 후리산 봉수대, 북쪽으로 사동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 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표산봉수대는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당시에는 강원도 평해군 소속 3개소의 봉수 중 개소였다. 전기에는 북쪽의 기성면 사동리 사동산 봉수에 신호를 전달하는 단일 노선이었으나, 중기 이후 남쪽의 평해읍 거일리 후리산 봉수에 응하는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었다.

봉수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정상부를 평지작업하고, 타원형 토축 기단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방형의 석축연대를 만들었다.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인 기단부는 장축방향이 북동-남서로 능선부 방향과 거의 같다. 토석혼축 기단부의 크기는 하단부가 길이 29.6m, 너비 21.6m이고, 상단부가 길이 23.7m, 너비 16.8m이며, 높이 2m이다.

684. 을진군·한빛문화재연구원, 2015,『울진 표산 봉수대』



&lt;그림 166&gt; 울진 표산 봉수대

연대는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타원형 기단부의 동쪽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길이 30cm, 너비 20cm, 두께 10cm 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최하단부를 방형으로 1단 쌓았으며, 그 위로 높이 60cm로 석축을 쌓아올렸다. 방형 기단부 중앙부에 평면 형태 방형으로 추정되는 연통을 설치하였는데, 상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북쪽의 방형 석축단이 나머지 3방향의 축대에 비해 완만하고 넓게 펴져 있어 연대로 오르는 출입구로 추정된다. 다른 봉수대에 비해 최하단의 방형 석축의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인데, 북동쪽 서북쪽 하단부의 모서리가 잘 남아 있다. 이 외에 석축연대의 동쪽 후면이 잘 보존되어 있다. 방형 석축연대의 하부 크기는 길이 9m, 너비 7m이고, 전체 높이는 2.4m이다. 연대 정상부에는 연소실로 추정되는 길이 1.9m, 너비 1.7m인 방형 석열이 확인되나 정상부 내부까지 석재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 6. 항출도산 봉수대

북면 나곡리 산 1-1번지에 위치한다. 항출도산 봉수대는 나곡리 ‘나실’마을에서 보면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해발 114.8m인 봉화산 정상부이다. 현재 봉수대로 오르는 길은 봉화산 서쪽 계곡부를 지나 능선을 타고 가면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능선 정상부에 봉수대가 있다. 위치상 동해쪽으로 돌출된 산 정상에 있어 남북으로 삼척과 죽변쪽이 넓게 조망되어 봉수지로서 입지조건이 우수하다.



&lt;그림 167&gt; 울진 항출도산 봉수대

봉수대가 있는 봉화산 정상부에는 현재 벙커와 좌표 콘크리트 구조물 등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길을 만들면서 봉수대의 서쪽 경계가 훼손되었으며, 동북쪽 경계에 설치된 벙커는 연대의 일부분까지 훼손하였다. 또한 연대 중앙부에 좌표표식을 위해 지름 3m 가량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내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항출도산 봉수대의 봉수망은 남쪽으로 죽변곶 봉수대, 북쪽으로 삼척 가곡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 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항출도산 봉수대는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강원도 울진 현 소속 4개소의 봉수 중 1개소였다. 남쪽의 죽변곶 봉수, 북쪽의 삼척 가곡산 봉수에 응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항출도산봉수(恒出道山烽燧)’라 표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

봉수대는 남동쪽 경계부의 지형과 북쪽 및 동쪽 경계 일부에 직선상 석열이 약 2m 가량 남아 있어 기본적으로 방형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봉수의 경계는 자연지형의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원형의 훼손이 심하여 확신할 수 없다. 남아 있는 기단부의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그 위에 토석혼축 연대를 올린 형태이다. 기단부의 크기는 하부 지름 11m, 상부 지름 9m, 전체 높이 1.2이다.

연대는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원형 기단부의 동쪽편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길이 30cm, 너비 15cm, 두께 10cm 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하단부를 쌓고, 그 위로 여러단의 석축을 쌓아 올린 위가 잘린 원추형으로 남아 있다. 석축의 대부분이 결실되고 연대의 서쪽과 동쪽 일부가 남아 있다. 특히 동쪽 석축은 남쪽에 비해 경사가 더 완만하고 석열의 경계가 어긋나거나 기단부에까지 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로 오르는 입구부로 추정된다. 원형 석축연대의 하

부 지름 6m, 상부 지름 4.5m, 전체 높이는 0.8m이다.

## 7. 후리산 봉수대

후포면 후포 1리에 위치한다. 봉수망은 남쪽으로 경상도 영해 대소산 봉수대, 북쪽으로 표산 봉수대와 응하였다. 사용 시기는 늦어도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는 사용되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된 1760년 이전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후리산 봉수대는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 당시에는 강원도 평해군 소속 3개소의 봉수 중 1개소였으나 현재 석회석 광산과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봉수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봉수대가 있었다고 전하는 곳은 해발 178m인 정상부로 남쪽과 북쪽으로 시야가 넓고 주변지역에 비해 해발이 높아 바다가 잘 조망되는 자리이다.

박광열